

트랜스젠더 인권의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 2019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을 사례로 —

황 수 연*

목차

I. 들어가는 말	IV.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II. 서발턴과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배경	V. 맺음말
III. 트랜스젠더 대항공간으로서 ‘트랜 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소수자 당사자들의 정치적 실천에 있어 공공공간이 어떠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는지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19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위주체, 즉 서발턴의 정치적 실천에 있어 공공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정치적 실천의 행위자들이 서발턴 정체성의 가시화 운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 공공공간은 그 자체로서 전략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행위 전략의 장으로서 서발턴 대항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행위자들 또한 이러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운동의 방식으로서 적

*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 전남대학교 법학 석사과정
논문접수일 : 2023. 1. 25., 심사개시일 : 2023. 2. 14., 게재확정일 : 2023. 2. 21.

극적으로 선택하고, 공간을 전유함으로써 정치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었다.

물리적인 공공공간은 우리 공동체가 현실 세계에서 누구를 공동체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기준을 가장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렌즈가 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 그중에서도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원칙적으로는’ 모두에게 허용된 권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배타적 성원권의 경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인권과 공간의 교차적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지침이 됨과 동시에, 공간이 표상하는 인권의 경계를 횡단하는 주체들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인권, 성소수자, 공공공간, 공공영역, 사회적 공간, 서발턴

I. 들어가는 말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故변희수 육군하사의 강제 전역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그 어느 곳보다 경직된 곳으로 생각되는 ‘군대’라는 공간의 젠더질서를 뒤흔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그 자체로 남성성의 상징이자 남성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표출되도록 기대되는] 공간이다. 극도로 젠더화된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등장은 그 자체로 남성성이 무엇인가, 군대가 원하는 병사가 누구인가, 군대에 가장 적합한 인재는 어떤 속성을 지녀야 하는가¹⁾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견고했던 군대의 폐쇄성과 절대적인 남성성에 대한 맹신에 균열이 나는 순간이었다.

1)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다는 점이 신뢰할만한 근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차별이 정당화된다고(이준일, 2011).

故변희수 하사의 등장은 그 자체로 기존의 젠더화된 공간에 균열을 내고,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공공영역(Public Sphere)에 등장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숨기고 살라’는 압박을 깨고 ‘기어이’ 공공영역에 적극적으로 등장한 이 ‘이탈자’들—푸코(Foucault)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비행자’—이 공공성(Publicity)과 공공영역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공공영역에 드러나도 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공공영역에서 어떤 모습의 공중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잣대를 만들어내는 권력은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본 연구는 몇몇 지리학 연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공간 속에 담지된 공공성의 질서를 벗어난 소수자들을 호명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소수자 당사자들의 정치적 실천에 있어 공공영역으로서의 공공공간이 어떠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는지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서발턴과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공공공간의 포함과 배제

공간의 지성사는 오랫동안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절대적 공간은 공간을 절대적인 ‘용기(容器)’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이자 고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반대로 상대적 공간은 대상 및 행위자가 공간에 선행한다는 개념으로,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창한 르페브르(Lefebvre)는

‘사회적 공간’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공간은 사회의 생산물이며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적 공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회적 공간이 존재한다. 사회적 공간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것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공간은 서로 침투적이며/이거나 서로 포개진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분석을 위해 채취된 공간의 각 파편이 단 하나의 사회적 관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²⁾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론은 공간과 사회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보여준다.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론으로도 설명되듯, 공공공간은 무엇이 공간을 구성하는가, 그리고 누가 ‘공공(the public)’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경합의 산물이다. 서구 역사에서 공공장소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그리스의 아고라(agora)에서부터 공공장소는 이미 포함과 배제가 작동하는 공간, 즉 선택된 이들과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 공공공간이 특정한 성원들만 그 대상으로 함은 이미 수많은 학자로부터 지적되어온 바이다. 미첼(Mitchell)은 공공공간이 그 목적을 막론하고 고안된 시점부터 그곳에 어떤 공중을 허용할 것인지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³⁾ 물리적 공간이 그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은 물론, 공공공간에서 드러나도 되는 이들은 권력 질서에 의해 선택된 이들이다.

많은 비판지리학자들이 페미니스트 관점, 포스트 모더니스트 관점, 맑시스트 관점에서 특정한 이들에 대한 포함과 배제가 작동하는 공공공간의 원리를 비판해왔지만, 공공공간이 허용하는 이들은 단

2)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역, 에코리브르, 2011, 152-160면.

3) Don Mitchell,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1), 1995, p. 108-133.

순히 한 속성만으로 치환되지 않는다. 누가 ‘공공’을 구성하는가의 기준은 항상 변해왔기 때문이다.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달리 공공성에 대한 실재적 권리는 도덕적 잣대, 즉 누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누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규정되어 왔다.⁴⁾

2. 서발턴(Subaltern)⁵⁾ 대항공간

프레이저(Fraser)는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개념이 갖는 부르주아적 해석에 대해 비판하며 ‘서발턴 대항공간(Subaltern Counterpublic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서발턴 대항공간이란 주변화된 집단이 주류 사회가 특정 공공장소에 부여한 본연의 기능에 저항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전유하는 공적 공간이다. 이러한 서발턴 대항공간은 공공에서 배제된 이들이 담론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⁶⁾ 역사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언제나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누군가를 배제해 왔으며, 언제나 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배적인 시선이 존재했다. 소수자는 공공영역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서발턴은 언제나 대안적인 또 다른 공공영역-서발턴 대항

4) Linda McDowell,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한울아카데미, 2010, 262면.

5) 한국어로는 ‘하위 주체’로 번역되는 개념이다. 그람시가 처음 『옥중수고』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한 집단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고 이후 사회학 분야에서 다양한 계보로 정의되어왔다. 그중에서도 스피박(1988)은 ‘영향력 있는 정치담론들로 미리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종속적 처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특정 집단을 지칭하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스피박의 정의를 가져와 담론이 결여된 종속적 하위주체로서의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명시하기 위해 ‘서발턴’으로 그대로 표기하였다.

6) Nancy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6, 1990, p. 56-80.

공간—을 조직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발턴 대항공간의 주요 기능은 해방적 잠재성에 있다. 즉, 서발턴 대항공간은 서발턴 주체들이 잠시 쉬어가고 재조직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경계를 흔드는 정치적 실천 행위를 도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근간이 된다.

프레이저가 제안한 공공영역의 논의는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영역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서발턴 대항공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공영역들은 하나의 구조적 환경 위에서 겹쳐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그의 공공공간에 대한 함의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프레이저의 공공영역의 논의를 물리적인 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은 미첼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첼은 프레이저의 논의와 공간에 대한 논의를 접합시켜 실질적으로 서발턴 대항공간이 사회의 공공성에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조직들은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대중에게 자신들을 노출하고 공간을 전유한다. 이들은 새로운 공공장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를 공공의 영역에 포섭하며 포함과 배제를 만들어내는 공공성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생산한다.⁷⁾

미첼은 소외된 이들이 자신들을 ‘공공’의 적실한 한 부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를 경유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물리적인 공간의 점유 없이는 서발턴들의 정치적 실천이 가시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공간은 서발턴이 사회의 지배 질서를 교란하며 어딘가에 존재하는 현실감을 지니도록 하는 장소로서 일상생활에서 일탈한 타자적 공간을 생산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⁸⁾ 따라서 공공공간은 ‘공공’을 구성하는 다양성이 가장 극명하

7) Don Mitchell, *op. cit.*, p. 108-133.

8) 정병언, “저항적 여성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현대영미드라마』 제20권 제

게 드러나는 공간이자, 이상화된 ‘공공의 이해’에 도전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⁹⁾

이는 공간을 바라보는 르페브르의 관점과도 공명한다. 르페브르 또한 전략적으로 서로 맞부딪치는 힘들이 압력과 행위,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로써 공간을 전유하는 행위들이 지배적이고 위압적인 사회의 권력 질서를 전복하고 교환과 지배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관은 바로 이러한 권력 질서와 서로 다른 사회적 공간 간의 포섭과 경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공간이라고 본다.¹⁰⁾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최근 도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해 서발턴 대항공간이 중요한 전략지가 될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학자마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에 명시된 권리 중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지점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권리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 참여의 권리, 차이의 권리가 그것이다.

전유의 권리는 법적으로 배타성이 보호되는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정의하는 권리이다. 어떤 집단의 필요와 잠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간이 변형되면, 그 집단은 그 공간을 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의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도시 거주자들이 능동적·집합적으로 도시정치에 관여하면서

3호, 2007, 133-152면.

9) Linda McDowell, *op. cit.*, p. 264.

10) Henri Lefebvre, *op. cit.*, p. 234-262, 510-511, 553-557.

스스로 규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프레이저의 다양한 정치 이론에서 중점이 되는 ‘동등한 참여’와 이어지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차이의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것을 동질화하려는 권력에 의해 결정된 범주 속으로 강제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차이의 권리는 실천적인 행위와 행동, 궁극적으로는 투쟁으로부터 얻어진다.¹¹⁾

서발턴 대항공간은 이 세 가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첫째, 미첼이 지적한 대로 공공공간은 서발턴이 사회에 자신들을 드러내고 공간의 포섭과 배제의 경계를 흔드는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서발턴이 공공공간을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서 사용하고 필요에 의해 이 공간을 전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유의 권리이다.

둘째, 서발턴 대항공간은 도시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공공성’ 또는 ‘시민권’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프레이저의 논의에서 공공영역은 담론 형성의 장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과 인정의 장이다. 공공성의 경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 경계와 성원권은 논쟁의 장이었으며 투쟁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공공성이란 항상 논쟁과 경합을 통해 형성되는 장으로서, 서발턴 대항공간은 이러한 새로운 공공성의 포섭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 참여의 권리가 주어지는 성원권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

셋째, 서발턴 대항공간은 공공공간에 다양한 사용 주체들을 등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살균되고 동질화된 공공공간에 권력 질서가 배제한 서발턴들의 등장은 사회가 다양성을 보

11)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39면.

게 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생산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서발턴 대항공간의 개념은 공공공간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운동 거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트랜스젠더의 대항공간으로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1. 연구 목적 및 방법론

공공공간과 인권(혹은 시민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황진태(2010)는 2008년 촛불집회 시위의 공간성을 고찰하며,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들의 운동 전략이 ‘영역화’에 있었던 반면, 최근의 사회 운동에서는 복수의 정체성의 경계 밖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탈영역화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영역화와 탈영역화는 동시에 여러 형태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공공공간이 사회운동 실천에서 전략으로서 점하는 위치를 엿볼 수 있다. 김동완(2014; 2015)은 규율과 규범 권력이 동질성을 공(公)의 의미로 귀결시키려는 것에 대한 대항공간으로서 이질성, ‘날 것’의 공간을 주장하였다. 그는 진입, 발화, 행위의 자유를 준거로 공공공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공간에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구획의 논리가 부단하게 관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계를 해체하는 반(反)영토의 실천을 대안으로 주장하였다. 김준호(2011)는 ‘사적 공간(private space)’을 결여한 거리노숙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공간에 점철된 동화

(同化)의 규범에서 이탈한 자들이 공공공간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방식의 ‘제재’를 검토하여 공공공간의 권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해방성을 보이려고 하였다. 김현철(2014)은 이러한 논의를 섹슈얼리티의 영역으로 이어가 도시공간의 주체가 무성적, 혹은 이성애적 존재로 획일화되었으며, ‘규범적인 이성애자’라는 표상 외의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지닌 몸들이 공공공간에서 그 존재가 탈각되었음을 보였다. 그리고 2014년 신춘 퀴어퍼레이드를 직접 참여하여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성적 반체제자들이 행진으로써 공공공간에 각인된 기존의 이성애정상가족의 규범을 전도하고자 한 지점에 주목하여 참여자들이 도시의 공공성을 어떻게 전유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공공공간에서 배제된 다양한 주체들을 호명하고, 나아가 이들의 공간을 경유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해방적인 도시공간의 가능성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서발턴이 자신을 억압하는 주류 권력 질서에 맞서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공공공간을 서발턴 대항공간으로 전유하는 정치적 실천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실천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2019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TDoR March, 이하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흔히 성소수자(퀴어)들의 집회 혹은 행진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서울퀴어퍼레이드와 각종 지역의 퀴어문화축제를 떠올린다. 어느덧 23회를 맞이한 서울퀴어퍼레이드는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퀴어 축제이다. 퀴어문화축제를 다룬 연구는 2014 신춘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공공공간의 배제성과 퀴어퍼레이드의 성적 실천에 주목한 김현철(2014), 퀴어문화축제의 정치를 탐구한 허성원(2019),

퀴어문화축제 공간의 상징과 의례를 연구한 조수미(2019) 등 지리학
과 여성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트랜스
젠더 추모의 날은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추모’가 본질
이라는 점에서 퀴어문화축제와는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트랜
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기존의 성질서를 담지하고 있는 공공공간
의 배타성을 폭로하고,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살아남음을 추모하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만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퀴어문화축제와 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2018년, 2019년 열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기존의
국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념해온 방
식과는 달리 소수자들이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나와 도시공간을 전
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의례가 공적영역으로 그 배경을 옮겼다는 데
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해당 행사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성소수자 커뮤
니티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정치
적 실천을 사례로 소수자 인권운동에서 공공공간이 갖는 의미에 대
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문
헌조사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의 경우 연구 주제와 관련
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주최 측에서 제공한 행사 관련
문건들과 관련 언론 보도, 연대단체·참가단체의 공개 후기록 등을
참고하였다. 인터뷰는 정치 행위자로서 주최자와 참여자로 크게 나
누어 주최 측은 특수표집 선정으로, 참여자 측은 눈덩이 표집 선정
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해 총 1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개인의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은 묻지 않았다.

소수자에 대한 연구인만큼 연구 윤리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위치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연구자는 주최 측과 연대해온 공동주관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 있어서 내-외부의 경계에 있는 중간자적 위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터뷰이의 신뢰와 라포를 형성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는 데에도 용이했다. 연구자의 중간자적 위치가 없었을 경우, 안전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 인터뷰이들에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을 밝힌다.

[표 1] 연구 참여자 목록

식별자	소속 및 거주지역	자료수집 방법
A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주최단위 활동가	심층면접 (2회)
B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기획단원	서면 인터뷰
C	연대단위 활동가	통화 인터뷰
D	연대단위 활동가	통화 인터뷰
E	연대단위 참여자	서면 인터뷰
F		
G	일반 참여자	서면인터뷰
H		
I		
J	이태원 거주자	서면 인터뷰
K	이태원 거주자,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자원활동가	서면 인터뷰

2. 트랜스젠더의 위치성

사례로 선정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의 분석에 앞서 서발턴으로서 트랜스젠더의 위치성을 짚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라는 용어

는 용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그 범위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루인¹²⁾과 스트라이커(Stryker, 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트랜스젠더를 출생할 때 지정받은 성별(지정 성별)과 본인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이들을 총칭하는 말로써 사용했다. 이는 여성-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gender)를 포함한 젠더퀴어(Gender Queer)¹³⁾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현재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중 성소수자’로서 존재한다. 성별정정이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하나,¹⁴⁾ 성별정정 과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예규¹⁵⁾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당 예규는 생식 기능 제거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을 침해해왔다. 이들은 법제화되지 않은 존재, 법으로 굳이 규명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존재, 즉 경계 밖의 ‘죽도록 내버려지는(푸코, 2011)’ 존재들이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¹⁶⁾는 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들에게 찍힌 낙인은 노동, 의료 등 삶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트랜스젠더들을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 의료적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계급적 차이와 성별 규범을 가로지르는 몸의 실천은 이들을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그들의 불완전한 젠더 순응성은 일

12) 루인, “젠더를 둘러싼 경험들 gender dysphoria”, 『여/성이론』, 제15권, 2006, 289-304면.

13) 성별이분법으로 규정되기를 저항하는/규정되지 않는 성소수자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14)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결정

1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16) 지정성별과 본인의 성별 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불쾌감을 말한다.

상생활의 영위, 인간관계 구축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의 진입 또한 어렵게 만든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은 트랜스포비아(transphobia)¹⁷⁾로 인한 범죄로 직접적인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¹⁸⁾

또한 트랜스 배제적인 급진 페미니즘¹⁹⁾(TERF;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의 등장으로 인해 이들의 몸은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도 극도로 예민한 정치적 장(場) 위에 놓여있다. 이 갈등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는 또다시 ‘말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랜스젠더의 가시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3.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의 배경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은 1998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혐오범죄로 희생당한 리타 헤스터(Rita Hester)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1월

17) 성전환과 트랜스젠더에 대해 적대적 태도와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혐오, 공포, 분노, 불편함으로 설명된다.

18) 국내에는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럽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TGEU는 2022년 통계에서 327명이 트랜스젠더 혐오범죄로 살해당했다고 보고했으며, 미국 인권캠페인(HRC)은 2022년 최소 32명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성소수자 특성상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와 자살로 죽음에 이른 경우를 합한다면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3월 16일 관련 정부 부처에 통계청의 사인분류를 포함하여 국가 통계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모두 불수용되었다.

19) ‘젠더’를 차별과 억압의 기제이자 해체의 대상으로 보는 움직임으로, 여성의 기반을 생물학적으로 환원하여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의 범주로 삼는다. 트랜스 여성의 존재를 잠재적인 공간 침입자 혹은 범죄자로 지목한다. 이러한 담론에서 트랜스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의 피해경험을 공감할 수 없는, 생물학적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가해자로 등장한다(이효민, 2019).

20일,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를 가시화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을 가시화하고, 혐오범죄로 죽은 트랜스젠더들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정치(trans-politics)에 있어 인종, 성별, 계급 등과 교차하며 나타나는 소수자성에 대한 가시화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지역 단위의 추모제, 행진, 영화제, 철야 집회, 예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촛불 추모회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2016년 촛불추모회는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하여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소개하고, 연대자들의 발언과 촛불추모회로 구성된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규모가 커져 실내 공간에서는 사진 전시회, 심리상담, 영화 상영이, 야외 공간에서는 촛불추모회가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실내에서 이루어진 사전 행사와, 야외에서 이루어진 연대발언 및 연대공연 등을 동반한 촛불추모회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는 ‘라운’이라는 단체의 사진전으로 이루어진 사전행사와 본행사가 마포구의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조각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촛불 추모회는 추모와 자기 돌봄, 자조(自助), 공동체 역량강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반면 2017년 말 창립된 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집회와 행진의 형식을 띠며 가시화와 트랜스젠더 의제의 정치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다. 2018년 11월 17일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 광장에서 제1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이 <그만 죽여라, 우리도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그간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에서만 기려지던 트랜스젠더의 죽음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트랜스혐오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일 같이었다.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그 일환인 트랜스포비아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비가시화된 트랜스젠더의 삶을 공공공간에서 드러냄으로써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긴장을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2019년 11월 16일, 마찬가지로 이태원 광장에서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이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의 후원을 받아 이태원 광장에서 부스 행사, 연대 발언 및 연대공연, 그리고 행진으로 이루어졌다. 제1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이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의 연대 발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제2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보통의 트랜스들의 삶 그 자체를 조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두 행사 모두 가시화라는 취지와 부합하게 이태원 거리를 뚫고 행진함으로써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IV.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1. 장소 선택의 전략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수자들의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 공공공간은 전통적인 계급투쟁에서는 ‘영역화’의 방식으로, 현대적인 정체성 투쟁에서는 ‘탈영역화’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왔다. 참여자들의 단일성과 결집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공

간에 대한 영역화 전략은 재개발 지역에서의 철거민들의 점거 투쟁, 노동자들의 파업과 작업장 점거, 광주 민주화 투쟁에서의 전남도청 점거 등과 같이 지배세력에 맞서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반면, 퀴어문화축제로 대표되는 현대적인 정체성 투쟁은 공공공간이 담고 있는 동질의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가로지르며 다양성과 이질성을 드러내며 연대하며, 공공공간을 ‘탈영역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역화와 탈영역화의 전략은 각각 독립된 개별현상이기 보다는 상호구성적으로 다양한 경로로 전개된다.²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서발턴 대항공간의 개념은 이러한 논의와 떨어져 있지 않다. 서발턴 대항공간은 동질성의 신화를 해체하여 공공성의 경계를 흔드는 탈영역화와 동시에 공공공간에 그동안 배제되어있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공공성을 재개편하는 영역화의 전략이 동시에 사용된다. 이러한 전략은 소수자들의 가시화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차용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어떤’ 공공장소를 전유할 것인가가 운동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태원에서 열린 2019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의 사례가 굳이 ‘이태원’이라는 장소를 선택한 맥락과 이러한 장소의 선택이 무/의식적 전략이 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가. 이태원의 장소성²¹⁾

이태원은 성소수자에게, 특히 트랜스젠더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

20) 황진태, “2008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경제와 사회』 90호, 비판사회학회, 2011, 268-270면.

21) 보다 더 맥락성을 가진,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복합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Massey (1994)는 장소를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사회관계들을 함께 모아서 엮은 특정한 접합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진 공간이다. 역사적으로 이태원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주둔으로 미군 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창구로 기능했다. 1980년대 각종 국제 행사를 거치면서 점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군 부대 이전 발표와 경쟁성 상실로 사실상 상권으로서는 쇠퇴하고 있었다. 상권의 쇠퇴가 가져온 지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태원은 새로운 집단들을 받아들였다. 1990년대 이후 산업연수제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만들어낸 외래문화의 풍경들은 이태원을 ‘다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²²⁾

다양성의 공간으로서 이태원은 성소수자 공간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태원에서 성소수자의 공간 전유는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부터 이태원에 성소수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1990년대에 게이바가 현재의 ‘게이 힐(Gay Hill)’ 안에 들어서면서 성소수자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젠더 클럽은 이태원 외곽에 위치하였으며, 성소수자 관련 업소들의 이태원 운집으로 더 많은 성소수자가 이태원으로 몰려들었다.

한유석(2013)은 이태원이 성소수자 문화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태원이 외래문화의 창구로서 한국 사회의 도덕률과 다른 도덕률이 적용되었으며, 다른 곳에 비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질적 문화 수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에 대한 간섭도 덜하기 때문이었다. 이태원은 단순히 국적의 다양성, 외래문화의 혼합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전시되고 여러 선택지가 제공되는 공간이다.²³⁾ 이러한 이태원의 다양성은 성소수자에게 ‘눈치

22) 한유석,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이태원 소방서 골목 사례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1호, 2013, 253-269면.

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나 말고도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괜찮은 공간'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감을 주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나. 장소성의 활용

이태원의 장소성을 고려한다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이 이태원에서 열린 것은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장소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최 측 운영위원 A는 다음과 같이 이태원의 장소성을 설명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트랜스젠더의 삶터이기도 하지만 가장 밀려나 있는 공간? 내가 가장 잊혀야 하는 공간? 내가 있지만……. 맥락을 조금 말하자면 트랜스젠더에게 트랜지션²⁴⁾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이태원을 많이 가요. 근데 돈을 벌고 나서도 이태원에 있어. 근데 트랜지션 이전과 이후의 트랜스젠더는 아예 다른 사람이예요. 수술하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없었던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이들은 그 공간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힙스터들의 거리로만 소비되고. 그래서 그 밀집 지역을 우리가 관통할 때 전통적인 업소들을 같이 지나가거든요.”

- A (주최단위 운영위원)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트랜스젠더에게는 삶터이자 역사가 담긴 공간이지만,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젊은 방문객들이 많은 상업지로 부상하면서-부상하기 위해서-트랜스젠더들이 음지로 밀려나고 잊힌(잊혀야 했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간을 트

23) 한유석, 앞의 논문, 253-269면.

24) 성별정정을 말한다.

랜스젠더들의 안전 공간으로 삼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토화²⁵⁾,²⁶⁾함에 있어서 이태원이라는 장소성의 활용이 주요한 전략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TDoR 행사를 ‘광화문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랑 ‘이태원에서 한다’, 그랬을 때는 느껴지는 느낌이 아예 달라지죠. 만약에 광화문에서 했으면, 이건 정말 (정치적) 대의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을 거고. 이거는 정말 그냥 사진 찍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그 정도로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삶터이니까.”

- A (주최단위 운영위원)

주최 측 운영위원 A는 광화문과 비교하여 이태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특히 주목하고, 광화문과 이태원의 장소성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광화문광장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점유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며 재구성된 정치적 장소다.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2008년 광우병 사건 당시 촛불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이어 최근까지 정치적으로 진보-보수 사이의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스펙타클(spectacle)이 비치는 현장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이슈, 특히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의 ‘그만 죽여라(1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구호)’는 메시지는 정치적 진영을 가로지르는 합성이자 이태원에서 밀려나고 있거나 밀려난 이들을 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25) 신혜란(2016)은 점유, 물리적 구성, 담론생산을 통해 특정 기억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으로서 ‘기억의 영토화’를 분석하였다. ‘기억의 영토화’ 개념은 주체들의 사회적 실천과 권력투쟁의 결과물로 기억 공간을 바라본다.

26)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6권 제3호, 2016, 115-54면.

그렇기에 더 많은 이목이 쏠릴 수 있는 광화문이 아닌, 이태원을 주최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국내 트랜스젠더 역사가 새겨진 이태원을 재탈환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되었다.

이태원은 선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다양한 종교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이들, 성소수자, 빈민, 다양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이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이태원 공동체에 유의미한 파장을 일으켰다.

“동(洞)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삶이 부대끼고 부딪치면서 그 동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눈에 가시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다, …(중략)… (기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자칫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마을에 있어 하나의 요소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중략)… 좀 더 집중해서 특히 트랜스젠더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죠. 이 행진 자체가 사람들에게 되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 C (연대단위 참여자)

2. 행위자들의 전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이라는 정치적 실천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을 분석했다. 답변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 실천’ 혹은 ‘행위’, ‘수행’ 등의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참여한 경험과 감정 등을 물었다. 분석 대상으로는 주최단위 참여자

(A, B), 연대단위 참여자(C, D, E, F), 일반 참여자(G, H, I) 모두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을 구성하는 행위자로 보고 분석하였다.

가. 생존을 이야기하기

“TDoR 행사의 주된 목적은 불화하기. 시끄럽게 하기. ...이 행진도 저희는 Parade가 아니라 March라고 명칭을 해요. 행진하고, 살고 싶다는 말을 쏟아내는 것. ... (중략) ... 당사자들이 불안을 호소하지 않으면, 더 불안한 삶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 A (주최단위 운영위원)

“이번 2019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슬로건부터가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이었죠. 너무 와 닿는 슬로건이었습니다. 행진 구호가 대부분 ‘우리도 살고 싶다’라는 말로 끝났었는데, 행진하면서 외치다 보니 거의 절규하듯이 소리를 질렀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퀴어들, 특히 젠더퀴어들이 혐오로부터의 안전장치가 없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곤 해요. 근데 정말 살고 싶거든요.”

- E (연대단위 참여자)

“트랜스젠더 ‘추모’가 쓰여있는 현수막과 행진 중 대표님의 언급²⁷⁾으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가 죽임당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일지라도, ‘이런 행사가 있구나’, ‘누군가 죽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 F (연대단위 참여자)

27) 행진 중 마이크를 잡은 주최측 ‘트랜스해방진선’의 대표가 행진 중 계속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느끼는 위협과 행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생존’이다. 제1회 구호인 “그만 죽여라, 우리도 살고 싶다”와 제2회 구호인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그 무엇보다 트랜스젠더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트랜스포비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죽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트랜스젠더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하며 생존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이 ‘생존’이라는 긴급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선을 끌고 정치적 의제로 끌고 가는 효과가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안보화(Seuritization)’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행위이다. 안보화는 이슈를 안전과 관련된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특정 지시 대상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있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정당화하고 요구하는 행위이다. 안보화의 조건으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과 대중으로부터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존적 위협, ‘이러한 특별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피할 수 없다’는 특정한 수사적 구조, 그리고 그 특별조치로 촉발되는 상호관계적인 파급효과가 요건이 된다.²⁸⁾

거리에 직접 등장하여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안보화 과정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알리고,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최 측에서 준비한 정의당 부대표의 발언은 의제 정치화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28) Barry Buzan · Ole Wæver ·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p. 21-48.

나. 드러내기

“주된 키워드는 노출인 것 같은데. 비가시화된 인간들이 가시화된 공공의 영역에 노출되어서, 노출의 공포를 무릅쓰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발언의 장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걷는다는 경험 자체가 그동안의 그 당위성을 말하는 기존의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의 토론회나 그런 곳에선 보기 힘든 개인과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들을 정치적 실천으로 이끄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 A (주최단위 운영위원)

“저는 지워지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 가시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트랜스젠더와 앨라이(Ally)들이 전유하며 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주변 상인과 일반 시민에게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 I (일반 참여자)

“(깃발을 든다는 것은) 당신들과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연대의 의미가 큼니다. 또한 부디 끝까지 살아남아 함께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의미도 있습니다.”

- F (연대단위 참여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이 기존에 행해오던 촛불추모제와 다른 점은 거대한 규모의 가시화에 있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도록

통제되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드러내기’로써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사회에 각인시킨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 규범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던, 발화의 권리와 공간을 박탈당한 서발턴이 직접 공간을 전유하고 행진을 함으로써 사회가 애써 숨겼던 자기 자신의 존재를 폭로하는 것이다.

‘드러내기’ 전략의 또 다른 효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확인하며, 자기를 긍정하는 기회가 된다는 데에 있다. F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에서 장거리의 이동을 했다. 일 년에 단 하루, 트랜스젠더들을 가시화하는 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가 속한 연대단위인 지방 인권단체의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다. 그는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왔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다. 유희하기

“되게 행진의 모양이 기존의 운동권 방식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달라.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강력한 워딩을 사용하거나, 뭐 민중가요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들의 방식으로 유희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게 추모하겠다고 나와서 행진(Marching)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는 막 씨스타... ‘우리들의 유희로 전유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 A (주최단위 운영위원)

“사실 저는 퍼레이드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다수를 위해 먼저 존재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소수자를 억압하는 법이, 이 시간만큼은 약자의 편에서서 도로를 접거하고 행진하는 것을 보장해주잖아요. 물론 그런 보장

을 얻어내기까지도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에 반해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죠. 예를 들면, 행진 동안에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조차 건널 수 없고 운전자들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마치기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좀 통쾌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인도로부터 차도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눈빛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관찰하는 것도 꽤 재밌어요. 누군가는 신기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욕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응원을 하기도 하지요.”

- H (일반 참여자)

또 다른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의 전략은 유희였다. 비록 추모의 날이지만, 현 상황을 비판하고 아파하기보다 나름의 유희로 감정을 승화시키고 서로를 응원하는 의미이다. 주최 측이 행진을 위해 준비한 노래들은 대부분 자신을 긍정하는 내용의 가사를 가진 가요들²⁹⁾이었다. 참여자들이 유쾌하게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최 측의 고려였다.

참여자 H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행위 안에서 전복된 권력 질서를 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쾌함’을 느낀다. 또한 행진(내부)을 바라보는 비성소수자 시민(외부)의 시선을 뒤집어, 내부에서 외부의 반응을 관찰하며 재미를 느낀다. 이러한 점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은 유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 질문 던지기

“균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동네, 마을,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승인한

29) 주최 측의 플레이리스트에는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바다의 ‘Mad’, 이효리의 ‘U-Go-Girl’,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의 가요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상징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임을 향한 행진곡’이 있었다.

하나의 주체들,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결코 그 사람들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 이 공간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원한다는 것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거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측면에서 사실은 균열인 거고요.”

- C (연대단위 참여자)

“복잡하고 모순된 행진의 양상이 있어요. 분명 여기 드러내러 왔지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참가자들은. 이 모순적인 행동의 양상이 가시화한다 혹은 안 한대로 선 그어지는 실천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다층적인 행위다.... 그래서 그 안에 다층의 가시화/비가시화의 경계가 있고, 각 참여자들과 주최자들은 일상적으로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미세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나 자기 탐색을 요구하는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다.... 뭐 다 같은 속도로 같은 등위에 다다르지도 않아요.”

- A (주최단위 운영위원)

“TDoR 다음날이 제가 참여하는 책모임 정기모임이었거든요. 밥을 먹고 이동하던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형, 어제 제가 이태원에 갔는데 트랜스젠더들이 행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웬지 형이 있을 것 같았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존재’들을 처음 보기도 하고 해서 좀 무서웠다 이야기해서 TDoR의 의미와 왜 그런 행진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 H (일반 참여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이 던지는 질문은 다양하다. C는 해당 행사가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집중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성이

누구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경계 지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으로 A는 단편화된 하나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미지를 거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젠더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때로는 사회의 규범에 맞는 몸으로, 때로는 정상성 바깥의 몸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몸을 사유하고 행위를 하는 트랜스젠더들의 행위는, 공공성에 대한 경계의 투과성을 보여준다. 공공성에 대한 경계를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넘나드는 행위자들의 모습은 ‘과연 이 경계가 그렇게 견고하고 절대적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H는 일상생활에서 질문을 발견한다. 그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이 트랜스젠더에 대해 잘 모르는 지인과 대화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말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마주하던 ‘형’ H가 그곳에 함께 했다는 사실이 트랜스젠더와 연대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상상하게 하였다.

마. 연대하기

“함께 모인 사람들이, 혹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왜 사회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느낀다. 동시에 그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아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또한 안도와 연대감을 느낀다. …(중략)… 난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성별 이분법적 사고에 함께 저항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분들에게 연대감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라도 사회에서 지워지고 죽임당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함께 불안해지고 슬퍼진다. 내가 TDoR 행진에 참여하게 만드는 원

동력, 나의 생존이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행동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내가 트랜스젠더 지인이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연대감’인 것 같다.”

- G (일반 참여자)

“저한테 교차성이라는 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소수자성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어? 우리가 의외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구나’ 또 ‘서로한테 없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많이 제공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시너지효과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중요한데, 다양성을 갖다가 나열만 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들이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갖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 ‘공간’, ‘공유성’, 이런 것들.”

- C (연대단위 참여자)

마지막 전략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공통으로 갖는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연대하기’이다. 참여자 G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위협’의 감정, 그리고 성별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저항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 참여’라는 정치적 실천을 수행했다.

이러한 감정의 공유와 경험의 공유에서 교차성을 발견한 C는 향후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태원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안정성이 트랜스젠더의 그것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같은 (물리적) 공간 위 다른 (사회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C는 그 두 세계가 마주치고 서로 연대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공공장소를 서발턴 대항공간의 정치적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 보고, 이태원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위주체들, 즉 서발턴들의 정치적 실천에 있어 공공공간이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발턴 대항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참여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소수자 인권 운동에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실천의 행위자들이 서발턴 정체성의 가시화 운동을 하는 데 있어 공공공간은 그 자체로서 전략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행위 전략의 장으로서 서발턴 대항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행위자들 또한 이러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운동의 방식으로서 공간의 전유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공공공간은 국가 권력에 대해 하나의 평형추로 작동할 수 있는 비(非)-통치적(non-governmental)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으로서 서발턴의 정치 행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다양한 서발턴 대항공간들의 등장은 자율적인, 공공영역 간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공공공간의 해방적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양한 인권 담론을 키워나가는 데에 있어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본 연구는 2019년에 이루어진 연구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2019년 이후 COVID-19의 유행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공간적 실천들은 제한되었으며, 소수자에 대한 날 선 혐오가 촉발되어 사회적 동질성과 ‘모범 시민’ 또는 ‘일등 시민’의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설정하

며 약자에 대한 타자화를 부추겼다. 2020년, 2021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는 SNS상으로 그 공간을 옮겨가 온라인 캠페인과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의 주최로 소규모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공공공간에서의 활동이 다시 위축된 셈이다.

물리적인 공공공간은 우리 공동체가 현실 세계에서 누구를 공동체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기준을 가장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렌즈가 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 그중에서도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원칙적으로는’ 모두에게 허용된 권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배타적 성원권의 경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인권과 공간의 교차적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지침이 됨과 동시에, 공간이 표상하는 인권의 경계를 횡단하는 주체들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 신승원, 앙리 르페브르, 서울: 커뮤니티이션북스, 2016.
-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09.
- 고민경,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동완, “반영토의 정치과정과 공공공간”,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 _____, “‘날 것’으로서 공공공간과 타자의 복원: 로열 페스티벌 홀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4권 3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 김준호,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1권 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 김현철, “성적 반체제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5권 1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 루인, “젠더를 둘러싼 경험들 gender dysphoria”, 「여/성이론」 제15권, 도서출판여이연, 2006.
-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6권 3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 이준일,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 「세계헌법연구」 제18권 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 이현재, “성소수자의 인권도시운동과 탈-전통적 연대 개념의 재구성 - 호네트와 버틀러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78권 3호, 범한철학회, 2015.
- 이효민,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4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 정병언, “저항적 여성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현대영미드라마』 제20권 3호,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07.
- 조수미, “퀴어문화축제 공간의 상징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제52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9.
- 한유석,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이태원 소방서 골목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1호, 서울연구원, 2013.
- 허성원, “정치를 새롭게 읽어내는 퀴어정동정치: 한국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7권 3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19.
- 황진태, “2008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경제와 사회』 90호, 비판사회학회, 2011.
- B. Buzan · O. Wæver ·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 M. Foucault,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토르망 역, 난장, 2011.
- H.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 D. Massey,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L. McDowell,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한울아카데미, 2010.
- S. Stryker, 트랜스젠더의 역사: 현대 미국 트랜스젠더 운동의 이론, 역사, 정치, 제이, 루인 역, 이매진, 2016.
- K. Yoshino,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김현경, 한빛나 역, 민음사, 2017.
- N.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6, Duke University Press, 1990.
- D. Mitchell,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1), 1995.

<Abstract>

**Public Space as a Political Strategy
of Transgender Rights**
**- Case study on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March in
Korea, 2019 -**

Sooyearn Hwang*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trategic position of public space in the political practices of minority parties. Inspecting public space as a strategic choice for the political practice of the subaltern counterpublics,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ic position of the public space in the political practice of subalterns,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2019 Transgender Remembrance Day March'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ublic space itself turned out to be a strategy in practicing the movement for the visualization of subaltern identity by the actors, and at the same time, functioning as a space for the subaltern to practice various politic strategies. Actors are also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se public spaces, and have obtained various effects by strategically choosing them as a method of movement and appropriating the space.

Physical public space becomes the lens that most explicitly exposes the criteria for who the community accepts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in the real world. Since the right to the city—particularly, access to public space—is a right granted to everyone ‘in principle’, it paradoxically reveals the boundary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membership of the community

* Master of City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ster Course of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ost clearly. Therefore, the intersectional study of human rights and space will be a guideline pointing to the current state of minority human rights in our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an effective method for subjects crossing the boundaries of human rights represented by space.

Key Words : Human Rights, Sexual Minority(LGBTQ), Public Space, Public Sphere, Social Space, Subaltern

